

# “100경기 이상 뛰며 20홈런 20도루 도전”

## 신인왕 꿈꾸는 KIA 루키 김도영

내달 1일 스프링캠프 합류 대비 합평서 훈련 중  
수비 훈련 주력 “박찬호 선배 많이 배우고 싶다”  
이범호 코치 “큰 욕심 안 내고 단계적 성장 유도”

KIA 타이거즈가 2년 연속 ‘신인왕’ 배출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36년만에 ‘신인왕’ 이이령을 배출한 KIA는 올 시즌 데뷔를 앞둔 슈퍼루키 내야수 김도영(19)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2022년 신인 1차 지명으로 KIA 유니폼을 입은 김도영은 동성고 시절부터 특급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다. 182cm 81kg의 다부진 체격조건을 갖춘 김도영은 타격, 파워, 주루, 어깨, 수비를 골고루 갖춘 ‘5툴 플레이어’로 평가받는다. 홈에서 1루까지 3초 96에 도달하는 빠른 발이 압도적이다. 고교시절에는 통산 63경기 타율 4할 3푼 3리(201타수 87안타) 2홈런 34타점 57득점 42도루 OPS 1.096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9월에는 U-23 야구월드컵 대표팀에

선발돼 국제대회 경험을 쌓기도 했다. 지난해 마무리캠프부터 팀에 합류한 김도영은 12월과 1월 올해 신인들과 함께 합평서에서 훈련 중이다. 합평서 기아 챔피언스 필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오전에는 체력훈련, 오후에는 기술훈련을 하면서 스프링캠프를 대비하고 있다. 김도영은 지난 23일 전남매일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실 지명을 받았을 때도 프로선수가 된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났었는데 마무리캠프 때부터 합류해서 운동하다 보니 조금씩 프로선수가 된다는 것에 느낌이 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스프링캠프가 시작되면 또 달라질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격적인 프로 데뷔를 앞둔 김도영의 올해

목표는 1군 경기 출전 그 이상이다. 100경기 이상 뛰면서 20홈런 20도루를 하겠다는 당찬 목표를 세웠다. 김도영은 “하루 4-5시간씩 훈련을 하고 있다. 최종 목표는 신인왕이다. 일단 100경기 이상은 뛰어보고 싶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며 몸 상태를 올리고 있다”고 욕심냈다. 그러면서 “수비를 잘해야 1군에서 배팅을 못 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들었다. 1군 적응을 위해 수비 훈련을 열심히 하는 중이다. 캠프 때 박찬호 선배한테 많이 배워서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몸 상태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도영은 지난해 청소년대표팀에서 어깨 부상을 당해 11월 마무리 훈련에서 배팅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김도영은 “현재 배팅도 하고 있고 몸 상태가 아주 좋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전보다는 (어깨가)확실히 많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프링캠프와 연습경기할 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1군에 포함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슈퍼루키 김도영을 지켜본 이범호 KIA 타격코치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코치는 “굉장히 성실한 선수다. (김)도영이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봤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성장했다. 당시에도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스카우트 팀에서도 고심하고 뽑았다.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왜 좋은 선수인지 납득이 되는 실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범호 코치는 ‘단계적인 성장’을 강조했다. 이 코치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들을 축적시키면서 (김도영이) 단단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빨리 성장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씩 적응해나가고 성적도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현역 생활을 이어가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며 “워낙 성실하기에 1-2년 안에 KIA를 이끌 수 있는 선수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조혜원 기자



김도영



2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2022시즌 개막전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우승을 차지한 대니엘강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대니엘 강 LPGA 투어 시즌 개막전 우승

### 박인비 공동 8위·소렌스탐 2위

교포 선수 대니엘 강(미국)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2시즌 개막전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15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대니엘 강은 2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6,61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한 대니엘 강은 2위 브룩 헨더슨(캐나다)을 3타 차로 따돌리고 투어 통산 6승째를 수확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2만5,000달러(약 2억 6,000만원)다. 대니엘 강은 2020년 8월 마라톤 클래식 이후 1년 5개월 만에 투어 대회 정상에 다시 올랐다. 박인비(34)는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로 공동 8위로 대회를 마쳤다. 3라운드까지 1타 차 단독 선두였던 세계 랭

킹 1위 넬리 코다(미국)는 이날 3타를 잃고 10언더파 278타, 공동 4위로 밀렸다. 대니엘 강은 딱 1년 전인 지난해 개막전 연장전 패배의 아쉬움을 털어낸 우승이 됐다. 대니엘 강은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대회 기간 내내 선두를 지키다가 4라운드 16번 홀에서 제시카 코다(미국)에게 동타를 허용, 연장전을 벌인 끝에 2위로 대회를 마쳤다. 18번 홀(파3) 연장에서도 대니엘 강이 코다보다 더 가까이 공을 붙였으나 9m 버디를 잡은 코다에게 결국 우승컵을 내줬다. 그러나 올해는 3라운드까지 지난해 개막전 챔피언 코다의 동생인 넬리 코다에 1타 뒤진 2위에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해 역전 우승으로 정상에 올랐다. 유명인 부문에서는 연장전에서 메이저리그 투수 출신 데릭 로(미국)와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의 ‘성 대결’이 펼쳐졌다. 연장 첫 번째 홀에서 로가 약 7m 파 퍼트를 넣고, 소렌스탐은 그보다 짧은 퍼트가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가 승패가 정해졌다. /연합뉴스

## 김시우·임성재 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공동 11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총상금 760만달러) 2연패를 노렸던 김시우(27)가 공동 11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시우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PGA 웨스트 스타디움 코스(파72·7,11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때렸다.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 단독 10위 폴 바르종(프랑스)에게 1타를 뒤져 공동 11위에 머물렀다. 전날까지 11언더파 205타로 공동 24위에 머물렀던 김시우는 4라운드에서 16번 홀(파5)까지 7타를 줄이며 공동

3위까지 올랐지만, 17번 홀(파3)에서 티샷을 물에 빠뜨리는 실수로 더블보기를 범해 대회 2연패 기회를 놓쳤다. 김시우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최종 합계 23언더파 265타를 때려 패트릭 캔틀레이(미국)를 1타 차로 따돌리고 통산 3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3라운드까지 10언더파 206타로 공동 31위였던 임성재(24)는 4라운드에서 버디 6개로 6언더파 66타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김시우와 함께 공동 11위에 올랐다. 대회 우승은 23언더파 265타를 때린 허드슨 스와퍼드(미국)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 권순우 호주오픈 테니스 남자복식 16강 탈락

권순우(당진시청)가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7,500만 호주달러·약 644억원) 남자복식 16강에서 탈락했다. 마르코스 기론(미국)과 한 조로 출전한 권순우는 24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8일째 남자복식 3회전에서 베슬리 콜로프(네덜란드)-닐 스킵스키(영국) 조에 0-2(3-6 4-

6)로 졌다. 한국 남자 선수로는 2005년 프랑스오픈 이형택, 2018년 호주오픈 정현에 이어 세 번째로 메이저 대회 복식 16강에 진출한 권순우는 준준결승행 티켓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단식 랭킹은 권순우가 54위, 기론 66위로 현재 단식 랭킹이 없는 콜로프나 스킵스키에

비해 앞서지만 복식 순위에서는 21위 콜로프와 20위 스킵스키가 권순우(699위)나 기론(1,169위)을 압도한다. 권순우는 이번 대회 단식 2회전 진출 상금 15만4,000호주달러와 복식 3회전 진출 상금 6만5,250호주달러를 받고 올해 호주오픈을 마쳤다. 복식 상금은 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 권순우는 총 18만6,625 호주달러, 한국 돈으로 1억6,000만원 정도의 상금 수입을 올렸다. /연합뉴스

## 황의조 골 침묵 끝내고 첫 해트트릭

### 시즌 7·8·9호 골 기록 아시아 국적 선수 최다

프랑스 프로축구에서 활약하는 황의조(30·보르도)가 프랑스 리그 진출 이후 최초로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리그1 아시아 국적 선수 최다 골 기록을 세웠다. 황의조의 소속팀 보르도는 23일(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의 누보 스타드 드 보르도에서 열린 2021-2022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22라운드 스트라스부르와 홈 경기에서 세 골을 몰아치고 팀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해 12월 13일 트루아와 18라운드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이후 42일 동안 골 침묵을 지키다가 이날 하루에 시즌 7, 8, 9호 골을 연달아 몰아쳤다. 선발로 출전한 황의조는 전반 17분 레미우댕이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상대 수비수가 걷어내려다가 헛발질로 흘린 공을 쏘아하며 그대로 오른쪽으로 밀어 넣었다. 기세가 오른 황의조는 팀이 2-0으로 앞선 전반 39분에 절묘한 왼발 감아차기 중거리포로 한 골을 더 터뜨려 시즌 8호 골까지 넣었다. 보르도는 이 황의조의 득점으로 3-0으로 앞섰지만 전반 43분과 후반 12분에 스트라스부르에 한 골씩 내줘 3-2로 쫓겼다. 이후 후반 35분에는 스트라스부르의 동점골까지 나왔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보르도는 3-0 리드를 날릴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한 골 차 리드를 힘겹게 지키며 수세에 몰려 있던 보르도를 구해낸 것은 역시 황의조였다. 황의조는 후반 45분에 이날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은 알베르트 엘리스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자신의 프랑스 리그 진출 후 첫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황의조의 득점으로 4-2로 달아난 보르도는 후반 추가 시간에 다시 한 골을 내줬으나 결국 난타전 끝에 4-3, 1골 차 승리를 지켜냈다. 이날 세 골을 몰아친 황의조는 리그 통산 27번째 골을 기록, 박주영(37·울산)이 갖고 있던 프랑스 리그1 아시아 국적 선수 최다 득점 기록(25골)을 경신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12월 스트라스부르와 원



지롱댕 드 보르도의 황의조가 23일 밤(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의 누보 스타드 드 보르도에서 열린 프랑스 리그1 홈경기에서 골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정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고, 이날 홈 경기에서도 세 골을 폭발해 강한 면모를 보였다. 또 지난 시즌인 지난해 4월 스트라스부르전에서도 한 골을 기록, 최근 스트라스부르상대 세 경기에서 5골을 때려 넣는 파괴력을 발휘했다. 이날 승리로 보르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리그 경기 3연패를 포함해 최근 4연패 부진에

서 벗어났다. 특히 올해 열린 세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세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쳤는데 이날 황의조가 혼자 세 골을 터뜨리며 팀의 무득점, 연패 사슬을 모두 끊어냈다. 축구 전문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날 황의조에게 양 팀 최다인 평점 9.51점을 줬다. /연합뉴스